

이호성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방송과 통신 규제는 방통위가 주관하는 게 맞아”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월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은 최시중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작심 발언을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많은 정책적 성과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방송·통신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출범 당시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 이후 업무가 모호한 기준으로 나뉘었다”며 “한 정부에서 방통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청와대가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지명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민이 중심이 되

는 방송통신’이라는 제4기 비전 아래 추진해 온 성과와 앞으로 마무리하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방송 분야 불공정 갑을 관계 청산 및 상생 환경 조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 △인터넷 역기능 감소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한류 방송 콘텐츠 경쟁력 향상 및 유통 기반 확충 등이다.

방통위는 “제4기 방통위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방송통신 이용자의



©뉴시스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BS, 1000억 손실에 비상경영계획 실시…

‘오늘밤 김제동’ 폐지 등 대대적 개편

언론노조 KBS본부 “희생 전에 비전 제시 우선돼야”

KBS 노동조합 “7개 지역국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역방송국 말살 의도”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손실이 예상된 KBS가 비상경영계획을 실시한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고, ‘뉴스9’ 방송 시간을 앞당기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최근 ‘KBS 비상경영계획 2019(이하 비상계획)’를 마련했다. KBS 노동조합은 “사측에 따르면 올해 KBS의 사업손실은 1,000억 원이 넘어가고 내년 후반부터는 은행 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향후 5년간 누적손실이 6,500억 원이 넘는다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상계획을 작성한 ‘도널 리뷰 비상태스크포스(TF)’는 광고 수입 감소에 따른 적자 개선을 위해선 프로그램 축소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먼저 ‘KBS24뉴스’와 ‘아침뉴스타임’, ‘그녀들의 여유만만’, ‘KBS 바둑왕전’을 폐지하고, ‘추적 60분’과 ‘시사기획창’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전체 프로그램 수를 현행 9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회당 350만 원으로 고액 출연료 논

란이 일었던 ‘오늘밤 김제동’ 역시 9월 개편을 맞아 폐지될 예정이다.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드라마 부분도 개편 대상이다. 먼저 드라마 편성 시간을 기존 70분에서 50분으로 줄이고, 광고 비수기의 경우 예전 드라마 재방송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지상파 유일의 단막극 시리즈인 ‘드라마 스페셜’도 존폐 대상에 올랐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중계도 수익성에 따라 방송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비상계획은 고정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신입사원 선발 등 추가 인원 채용 중단 △TV, 편성, 송출센터 등 지역국 7개 일부 기능 광역거점 이전 △교대 근무 인력 통합 재배치 △TVR 관리 업무 KBS비즈니스로 이관 △경인취재센터 존속 재검토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KBS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KBS 노동조합은 “기자들이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대폭 폐지하거

나 방송 시간을 대거 이동시키며 프로그램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시사교양 프로그램 통합이나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

또 지역방송 구조조정을 놓고선 “7개 지역국의 TV, 편성, 송출센터, 총무 기능을 해당 총국으로 이전하면 7개 지역국은 그야말로 빈껍데기 방송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9개 총국과 강릉, 울산 방송국 등에 대한 인력충원과 제작기능 확충정책도 없이 7개 지역국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방송국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조조합 KBS본부는 현 KBS 위기 상황을 인정한 뒤 “희생 요구 전에 비전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제작비 증가 등으로 인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번 비상계획을 통해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 수치도 최대한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현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을 향해선 쓴소리를 쏟아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위기를 말하려고든 누구나 다 아는 내·외부의 엄중한 상황을 재차 강조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 스스로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라”며 “비상경영계획의 출발은 (경영진들이) 보직사퇴서를 써 놓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KBS본부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2천4백 조합원을 넘어 5천여 모든 직원들의 일 자리를 지키는 것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9광주FINA수영세계선수권대회 개막…MBC ‘방송 제작 지원’



©MBC

MBC가 ‘2019광주FINA수영세계선수권대회’의 감동의 순간을 최상의 중계 화면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다. 7월 12일 시작된 ‘2019광주FINA수영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로 손꼽히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28일까지 17일 동안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6개 종목에 194개국 2,639명이 참가한다. MBC는 올림픽, 월드컵 등 다년간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축적한 수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광주FINA수영세계선수권대회’의 주관방송사로 참여하고 있다. MBC는 국제신호(IS)를 제작해 세계 각 나라에 수신·전환·송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방송센터

(IBC)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전 세계 방송권자(RHB)들에게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019광주FINA수영세계선수권대회’는 수중 카메라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촬영 장비들을 활용해 스포츠의

생생함을 잘 전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MBC에서는 최상의 중계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약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외주 제작 환경 달라진다…정부 ‘가이드라인’ 11월 시행

계약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등 내용 담아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외주제

작의 원칙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 배분 △상생을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계약 체결 시 문체부가 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영권 구매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간 촬영 전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제작비 지급 시기가 불명확해 발생하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간 방송사의 자산을 이용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근거로 수익을 불합리하게 배분하던 관행을 타파하고자 방송사 자산의 이용 강제를 금지했다.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외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사 또는 특수 관계자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외주사 및 외주사 고용 인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모호했던 제작비 기준도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구성 요소 등을 고려해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제작비 산정 시 외주사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했다.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 기간 등을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불합리한 저작권 귀

속 및 수익 배분 등을 방지하고자 했다. VOD 수익, 해외판매 수익 등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할 때도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권리를 대표해 행사하는 사업자가 배분의 근거 자료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외주제작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체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개최 시기, 구성원, 논의 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방송사와 외주사가 상생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또다시 연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한 달 뒤 재논의

“대안 없으면 재도입” VS “사후 규제로 방향 전환이 맞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결정은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뿐 아니라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합산하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후 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앞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을 검토하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후규제안을 만들어 제출토

록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시장규제 개선 방안’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한 달 뒤에 다시 열어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 차는 여전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과 지역성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안이 나오면 (합산규제는) 일몰된다”면서도 “하지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줘에도 만들지 못하면 완전한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지 않겠느냐”며 재도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과 (사후 규제는) 별도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며 “시간을 준 것은 확실하게 입법의 틀로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M&A 시장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합산규제 재도입에 묶여 있느니 사후 규제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넷플릭스 흔들리나?…8년 만에 美 가입자 감소

디즈니, 워너미디어, 애플, NBC유니버설도 스트리밍 시장 진출 ‘경쟁 치열’

넷플릭스 미국 가입자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디즈니, 워너미디어, 애플 등이 스트리밍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데 이어 미국에서의 가입자도 감소세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7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미국 내 가입자가 13만 명 정도 줄었다. 전 세계 가입자 수는 270만 명 늘었지만 시장조사기관 리피니티브가 예상한 505만 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치다.

이에 영향을 받은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10% 안팎으로 떨어졌다. 넷플릭스 측은 “요금을 인상한 지역에서 전망치를 다소 하회했다”며 “시장 경쟁 환경이 넷플릭스 실적에 주는 영향은 낮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치에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마존이나 훌루 등의 성장과 디즈니, 워너미디어, 애플 등의 스트리밍 시장 진출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RBC 캐피털

마켓의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아마존과 훌루를 이용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봤다는 사람의 비율은 1년 전보다 각각 17%p, 18%p 증가한 54%(복수 응답), 43%로 집계됐다. 반면 넷플릭스는 응답자의 63%가 최근 1년 새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스트리밍 시장에서 1위를 지켰지만 이용자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해 8%p, 2년 전과 비교해 10%p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디즈니, 워너미디어, 애플, NBC유니버설 등도 자체 스

트링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즈니는 오는 11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픽사의 ‘토이 스토리’, 루카스필름의 ‘스타워즈’ 시리즈,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저스’ 시리즈, 폭스의 ‘아바타’ 등 25개 독점 오리지널 시리즈와 10개 신작 영화를 제공한다.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판권을 소유한 AT&T의 워너미디어도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워너미디어는 7월 9일 새 스트리밍 서비스의 명칭은 ‘HBO 맥스(Max)’라고 밝혔다. ‘프렌즈’는 지난해 넷플릭스 시청률 2위로 올해 말부터는 넷플릭스에서 ‘프렌즈’를 볼 수 없다. 워너미디어는 ‘프렌즈’뿐 아니라 ‘왕좌의 게임’, ‘섹스 앤 더 시티’ 등의 콘텐

츠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언론사 CNN,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등에서 보유한 콘텐츠도 제공받을 예정이기에 이용자를 모으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플도 올해 말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NBC 유니버설도 내년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넷플릭스는 경쟁이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 아니라고 발표했다지만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 워너미디어, 애플, NBC유니버설까지 가세한다면 넷플릭스의 독보적인 위치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민영방송의 방송 사유화 “방통위 칼 빼 들어야 한다” “방송 재허가, 요식 행위 아닌 문제점 바로잡는 기회 돼야”

SBS의 지주회사인 태영건설의 ‘방송 사유화’ 문제를 두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주주의 방송 개입과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가 7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SBS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부당한 행위를 설명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방송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방송사로 귀속되거나 공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지배주주에

게 돌아가는 행태다.

SBS 노조에 따르면 SBS, SBS콘텐츠 허브, SBS플러스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 그룹 SBS미디어홀딩스 체제에서 지난 10년간 계열사 간 부당한 콘텐츠 거래 구조로 빠져나간 SBS 수익이 3,700억 원대에 이른다.

공적 재원인 방송을 지주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송 사유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지상파방송의 위기가 매일같이 논해지고 있지만, 부영이 ‘한라일보’와 ‘인천일보’를, 중흥건설이 ‘남도일보’와 ‘해럴드경제’를 인수하는 등 다수 건설사의 언론사 인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업계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더군다나 지역 방송은 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방송에서 언론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주재원 한동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포스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 기반의 중앙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유일하게 다룬 것이 포항MBC였다. 포스코가 지역 언론에 미치는 광고로 인한 영향력을 두려워한 다른 지역 방송사들은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의견이 모였다. 제도적으로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부족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생각이다. 방송사업자 허가 및 재허가를 맡고 있는 방통위가 천편일률의 문서 작업이 아니라 칼을 빼 들고



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대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은 “재허가 심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항목을 명확히 명문화했으며 한다”며 제도적으로 더욱 명확한 규제를 요구했다. 또한 방통위에서 이를 좀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재허가가 요식 행위가 아닌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 재허가 방식이 아니라 주파수를 임대하는 ‘주파수 라이선스’ 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동원 정책위원은 “재허가처럼 갱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다 취소하고 새로 뽑는 라이선스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통위 관계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자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 중 일부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향후 재허가 심사 시에 말씀해주신 부분을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법원 “MBC 계약직 사원 해고는 부당”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MBC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내 계약직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7월 21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뉴스 앵커로 일했던 유 모 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유 씨는 2012년 4월 이듬해 4월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몇 차례 연장해 2017년 12월까지 일했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유 씨는 2018년 2월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두 달 뒤 서울노동위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에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MBC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MBC는 “유 씨는 MBC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M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는 MBC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며 MBC가 유 씨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 10명과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한 MBC는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5월 13일 이

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임의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7명의 아나운서들은 5월 27일부터 회사에 복귀했지만 회사는 이들을 기존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배치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 괴롭힘을 내용으로 한 ‘1호 사건’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민)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첫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하고자 한다”며 “사측은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별도 사무실에 격리한 채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차단



©뉴스IS

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업무에 필요한 비품(컴퓨터·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타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조항들을 위반하면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류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게 낫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MBC 측의 노동인권 의식에 책임을 묻고자 진정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양승동 KBS 사장, 과방위 불출석 여야 “국회 무시”, “KBS 청문회 하자” 성토

양승동 KBS 사장이 7월 15일에 이어 19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과방위는 7월 15일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승동 KBS 사장에게 KBS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 사장은 회의 하루 전인 14일 과방위에 문자 메시지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KBS는 시사기획 창’ 재방송 불방과 관련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회 상임위를 통해 방송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양 사장이 갑작스럽게 문자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출석은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까지 어겨가며 하루 전날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의문”이라며 “과연 양 사장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겠는가, 여야 간 합의조차 뒤집을 수 있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KBS는 바로 반박했다. KBS는 “KBS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사장이 해마다 기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에 대한

부분 △시사기획 창’은 현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 △한국당 의원과 KBS 공영노조,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직권 남용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등의 이유로 KBS 사장이 출석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과방위의 사장 출석 요구가 결정된 이후 과방위원들의 사전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는 한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해왔다”며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에는 11일과 12일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14일에도 직접 통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문자를 남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 사장이 1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불출석하자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나섰다. 이날 과방위는

KBS ‘시사기획 창’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양 사장이 국회의 정상적인 출석 요구를 2차례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외압 논란이 생긴 만큼 국회에 나와 당당히 소명하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양 사장이 여야 3당 합의를 2차례나 무시했다”고 지적한 뒤 “양 사장은 불출석 이유를 특정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했지만 KBS는 1,000억 원 적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방송법에 따라 KBS 결산안을 올려 경영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KBS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도 “양 사장은 특정 프로그램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BBC나 NHK도 이런 청와대 외압 논란을 일으킨 적 있느냐”고 반문한 뒤 “결산안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KBS가 계속 사장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국감은 나오고 상임위는 안 나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KBS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당연히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KBS 사장이 특정 프로그램 문제로 국회에 출석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CJ ENM, MBC 제치고 시청점유율 2위

방통위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구분	방송사	시청 점유율	본인	특수 관계자	지분 소유	구독률 환산
지상파	KBS	24.982%	21.688%	3.293%	0.001%	
PP	CJ ENM	12.637%	11.645%	0.025%	0.963%	0.004%
지상파	MBC	12.138%	3.974%	8.164%	0.000*	
종편PP	JTBC	9.000%	4.893%	1.067%		3.040%

* 시청점유율 기록은 있으나 규정에 따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

CJ ENM이 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MBC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방통위위원회가 7월 17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청점유율은 KBS 24.982%, CJ ENM 12.637%,

MBC 12.138%, JTBC 9.000%, SBS 8.544%, EBS 2.245% 등의 순이다.

‘시청점유율’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80개 방송 사업자의 410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 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한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2018년 매체 교환율은 1(TV) : 0.37(신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KBS는 2017년 26.890%에서 2018년 24.982%로, MBC

는 12.465%에서 12.138%로, SBS는 8.661%에서 8.544%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EBS는 2.180%에서 2.245%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를 필두로 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2017년 큰 폭으로 상승했던 JTBC는 9.453%에서 9.000%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TV조선은 8.357%(전년 8.886%), 채널A는 5.832%(6.056%), MBN은 4.990%(5.215%)로 산정됐다.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시청점유율은 CJ ENM이 12.637%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를 티브로드 계열 2.872%, 딜라이브 계열 1.451%, HCN 계열 0.734%, CMB 계열 0.064%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1.230%로 나타났다.

전숙희 sh45@kobeta.com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연변대학교와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향후 학술 및 인적 교류, 협동 연구 등 교류 지속할 것”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연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함께 남북방송기술의 통일 연구에 관한 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두 기관의 학술 및 인적 교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연합회는 그 첫 시작으로 연변 지역을 방문해 ‘방송기술 표준 및 동북아 방송교류 현황’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 분야의 필요성과 향후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었다.

학술 세미나는 △중국 미디어 산업의 현황 및 전망(서육란 연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분단국들의 방송 교류 흐름과 지속 가능한 남북방송 교류의 모색(최선욱,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 △지상파 UHD 방송 및 부가서비스(구진원 MBC 기술연구소 연구개발3팀 차장) △중국 중앙라디오TV방송국과 연변라디오TV방송국 소개(최필 연변라디오TV방송국 기술부 부주임) 등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이후 최국권 연변방송국 보도국주임과 최향단 연변대학교 신방과 교수 등이 참석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급속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방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모바일로의 시청 환경 이동

에 따라 올드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의 폭발적인 성장과 관련 서비스가 생겨나게 됐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존 방송국들도 광고 수익 감소와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월간방송과기술	주 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규	트 위 터 @kobetajournal
편집주간 박재현	페이스북 @kobetajournal
편집위원 김대환, 남윤석, 양창주, 이용학, 유의정	홈페이지 journal.kobeta.com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전숙희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인쇄인 SJC성전	등록일 2005년 6월 20일
전화 02-3219-5637	간 별 주간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UHD 송신시스템 교육 안내

1. 교육 목적

- UHD 방송 표준 규격의 ATSC 3.0 기반 송신 시스템의 이해
- 실제 구축사례 중심의 UHD 송신 시스템 소개 및 안테나 기초
- UHD 신호 계측을 위한 기본 이론 교육
- UHD 신호 계측을 위한 스펙트럼 분석기 활용 교육
- UHD 무선설비 규칙의 이해
- UHD 무선설비 규칙 측정 및 노하우
- 국외교육 전달세미나 : 글로벌 Broadcast ATSC 3.0 전문가 양성과정 (독일, LS telcom Training Academy)

2. 교육 일정

교육 일정 : 2019.07.29(월) ~ 07.31(수), 총 3일

교육 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 20명

교육 장소 :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3. 접수 방법

7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4. 기타

교육비 : 무료

담당자 : 민서진 과장, 송수정 사원

문의사항 : 02-3219-5640~1

E-mail : bea@kobeta.com



일정	시간	단위	강사	교육 내용
1일차	13:40~14:00	30분	방송기술교육원	• 교육 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4:00~18:00	4시간	KBS 미디어총출부 전성호 팀장	• ATSC 3.0 표준 기반 SFN 방송망 구축 현황 - 송신계통을 구성하는 장비들과 A/32x 표준 이해 - 2020년 이후, 시군단위 SFN 구축 계획 논의 • ATSC 3.0 SFN 방송망 운용/관리 기법 - 모바일 수신을 고려한 전송 파라미터 최적화 - 송신기별부호 TxID 기술을 활용한 필드테스트 • 본방송 2년간의 SFN 방송망 안정화 사례 - 본방송 이후, 시스템 운용상 이슈들과 해결책 - 전국 SFN 운용 장애 시, 로그 분석 방안 • 실시간 SFN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UHD 재난경보방송 - SFN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활용 방안 - 지상파 UHD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축과 운용
2일차	10:00~12:00	2시간	MBC 기술연구소 이현주 연구원	• UHD 송신시스템 - ATSC3.0 송신 표준의 이해 - 송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알아야 할 기술들 - 현재 운영 중인 UHD 송신 Parameter - UHD 모바일 방송 xUHD 송신 Parameter - 송신 Parameter 설정을 위한 기초 지식
	12:00~13:30	1시간 30분	중식	중식
	13:30~15:30	2시간	SBS 기술기획팀 이준형 매니저	• 안테나 기초 - 개요 및 용어 정리 - 안테나의 종류 - 우리가 방송에 사용 중인 안테나 • SBS UHD송신시스템 개요 - 헤드앤드 송출시스템 구성 - 송신시스템 구성 및 구축 현황 - SFN구성과 정합이슈
	15:30~17:30	2시간	KBS 미디어총출부 구자훈 차장	• UHD 주조 Head-end 구성 - 주조 Head-end 구성도 - IP Multicast • Broadcast Gateway 주요 설정 - OFDM(Guard Interval/FFT size) - Broadcast Gateway 주요 설정 항목
3일차	10:00~12:00	2시간	로데슈바르츠 BCM 김중영 부장	• UHD 무선국 규칙 및 측정 Part 1 - 주파수 정확도 - 침투전력대량균전력- MER • UHD 무선국 규칙 및 측정 Part 2 - 스퍼리어스하모닉 - 대역외발사강도
	12:00~13:30	1시간 30분	중식	중식
	13:30~15:30	2시간	로데슈바르츠 PS팀 조현호 부장	• 전자파 측정 기본 이론 - 전자파 측정 기초 - 스펙트럼 분석 기초 이론 • 스펙트럼 분석기 활용 - 주요 파라미터 측정 이해 - 주요 측정 항목 측정 이해
	15:30~16:20	50분	KBS 송신시설부 박승근 차장	[글로벌 Broadcast ATSC 3.0 전문가 양성과정 전달세미나] • ATSC 3.0 송신 시스템의 이해 및 실무 - ATSC 3.0 전파 및 파라미터 이해 - UHD 송신시설 구축 현황 - 전파분석 틀을 이용한 SFN 환경 분석
	16:20~16:30	10분	휴식	휴식
	16:30~17:10	40분	SBS 기술기획팀 이준형 매니저	[글로벌 Broadcast ATSC 3.0 전문가 양성과정 전달세미나-2] •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 DVB-T, T2 System Diagram - ATSC3.0 Overview • Terrestrial Audio Broadcasting - FM, DAB, DMB - Digital Radio • Alternative Broadcast Content Distribution - FeMBMS - Tower Overlay
	17:10~17:30	15분	방송기술 교육원	• 설문조사 및 종료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